고흥문화재단, 오는 29일 공식 출범식 개최

고흥 문화백년대계 첫걸음, 군민과 함께하는 축하·소통의 장

29일 공식 출범식 포스터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이끌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전문 전담 기구인 '재단법인 고흥문화재단'이 마침내 베일을 벗고 공식 출범한다.

군은 오는 29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문화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고흥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공식 행사로, 재단 설립을 위해 힘써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군민들과 함께 걸어갈 여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설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영민 군수의 기념사, 출범 기념 영상 및 각계각층의 축하 영상 상영, 대표이사의 미래 비전 제시, 재단의 힘찬 출발을 선포하는 출범 퍼포먼스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관리 강화

보성군은 여름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6월부터 9월까지를 비브리오패혈증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시 발열과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간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감염 위험이 높아 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 군은 주 1회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해 해수와 수족관수, 어패류, 갯벌 등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해수 온도를 측정하는 등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공유회서 현안 건의

해남군은 23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및 시·구·군 당선인과의 업무공유회'에 참석해 해남군의 미래 신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현안 2건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업무공유회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시장과 기초 지자체장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광주 통합 시대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현안 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솔라시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및 RE100 산단 최우선 지정 △지방도 806호선(마산~산이 간) 확·포장 공사 1·2단계 동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공유회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

/윤보현 기자

진도, 아동 대상 CPR 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 강화

진도군보건소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과 함께 임회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119 신고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사람 모형(마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전문 강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가영 기자

장흥 대덕읍 복지기동대, 장애인 가정 주거 개선

장흥군 대덕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병석)는 23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최근 퇴원한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병원 치료를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실내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덕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찾아 낡은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협업팀 선정

완도군청 전경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지난 16일 적극 행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2명과 협업팀 1팀을 선정했다.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는 수산경영과 김총경 주무관, 지역개발과 이도운 주무관, 협업팀은 보길면 농수산팀·개발팀이 이름을 올렸다.

적극 행정 공무원 선정은 총 4개의 적극 행정 사례에 대해 '소통 24'를 통한 전 국민 온라인 투표와 발표를 거쳐 진행됐다.

우수 사례는 관행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산경영과 김총경 주무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양식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완도군 어장도' 모바일 앱과 PC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7,000여 개 면허 좌표를 전수 입력하고 GPS 검색 기능과 오프라인 지도를 구축해 해상에서도 면허 위치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역개발과 이도운 주무관은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섬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5년도에 전국 1위와 국비 54억 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소규모 섬까지 사업 대상으로 적극 발굴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협업팀으로 선정된 보길면 농수산팀과 개발팀은 태풍 볼라벤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중리마을 해양 쓰레기 약 1,500톤을 주민, 관련 부서, 업체와 협력해 3개월 만에 정비했다.

이를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민 참여형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이문수 기자